

공동체를 흔드는 손

교만과 분열을 이기는 겸손 · 소그룹 나눔 자료 · 사사기 12:1-6

본문

사사기 12:1-6

설교 핵심 요약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에브라임 지파는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느냐며 항의했고 이는 결국 42,000 명이 죽는 내전으로 번졌습니다. 에브라임은 야곱에게서 물려받은 장자 지파라는 영적 기득권에 빠져 하나님이 세우신 입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교만은 “네 집을 불사르리라”는 험박과 길르앗 사람을 도망자로 모는 근거 없는 비방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 말은 가문에서 쫓겨났던 입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공동체를 뿌리째 흔드는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만이 다른 이의 세워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선을 넘는 말이 상대의 깊은 상처를 건드려 관계와 공동체를 돌이키기 어려운 분열로 몰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눔

1. 여는 질문

1. 누군가 나를 빼놓고 어떤 모임이나 결정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어 서운했던 경험이 있다면 가볍게 나눠주세요.
2.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가 전쟁할 때는 돕지 않다가, 승리한 뒤에야 찾아가 왜 부르지 않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나눠주세요.

2. 말씀 나눔

1. 사사기 12 장 1 절과 4 절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에게 실제로 한 말은 각각 무엇이었는지 본문에서 찾아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2. 설교는 에브라임의 항의를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도전한” 영적 교만이라고 짚었습니다. 왜 이 사건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교만의 문제로 읽히는지 나눠주세요.
3. 기드온 때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는 겸손한 한마디로 넘어갔지만, 입다 때는 같은 항의가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말

한마디의 차이가 공동체의 운명을 가른다는 사실이 나의 관계 속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지 나눠주세요.

4. 에브라임은 입다의 가문을 불사르겠다 위협하고, 쫓겨났던 입다의 아킬레스건인 “도망자”라는 말로 그를 건드렸습니다. 누군가 사실 확인 없이 나의 가장 아픈 과거를 건드린다면, 나는 조용히 삭일지 끝까지 맞설지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3. 더 깊이

1. 설교자는 자신이 “억울한 입다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에브라임에 더 가깝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도 누군가 세워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졌거나, 확인 없이 누군가를 평가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돌아보면 어떨까요?

4. 삶의 적용

1. 이번 주 누군가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전해 듣거나 옮기고 싶어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 말을 입 밖에 내기 전에 “이게 사실인가”를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는 멈춤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2. 누군가 내 자리나 역할을 대신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려 할 때, 그 감정을 그대로 삼키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의 세우심”이라고 소리 내어 인정해보면 어떨까요?

함께 살펴볼 말씀

1. 사사기 8:2-3 — 같은 항의에도 기드온이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을 추켜세워 피 흘림 없이 갈등을 가라앉힌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2. 창세기 48:13-14 — 야곱이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에게 얹어 축복한, 에브라임의 장자 의식이 시작된 장면입니다.
3. 야고보서 3:5-6 — “작은 혀가 공동체를 뿌리째 흔든다”는 말의 위력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4. 야고보서 4:6 — 영적 교만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경고와 맞는 말씀입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만, 야곱이 손을 엇갈려 축복함으로 장자의 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나안 정복 시대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출신이었기에, 이들은 이스라엘 열 두 지파 중 자신들이 늘 중심이어야 한다는 자부심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실천

1. 이번 주 가족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꺼낼 때, 그 말이 사실 확인된 것인지 한 번 되물어보세요.
2. 이번 주 직장이나 교회에서 나보다 먼저 인정받거나 세워진 사람을 만나면, 속마음과 달라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직접 건네보세요.

이 중 하나를 골라 실천해 보고, 다음 모임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함께 기도

- 내 안에 숨어 있는 영적 기득권과 불편한 마음을 솔직히 주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도록
- 사실 확인 없이 옮기려던 말을 멈추고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주시도록
- 다른 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동참하도록

마무리 기도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는 입술을 지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실 때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 영적 교만을 숨기지 않고 꺼내어 보게 하소서. 선을 넘는 말이 얼마나 쉽게 누군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공동체를 뿌리째 흔드는지 깨닫게 하시니, 이번 주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확인되지 않은 말을 옮기려는 순간마다 멈추게 하시고, 다른 이의 세워짐 앞에서 겸손히 손 내밀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 공동체도 살고 저도 사는 그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